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출범 화학물질 규제동향 파악, Tracking 시스템 구축



이귀호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장

최근 EU는 REACH, RoHS 등 우리 수출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규제를 대거 신설하고 특히 2012년부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m 주행당 1백30g 이내로 제한하는 배출규제를 도입하는 등 2020년까지 90여개의 신규 규제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기존 「REACH 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 세계 각국의 모든 환경규제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지난 달 21일 출범했다.

이귀호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장에게 센터의 기능과 함께 향후 발전 계획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전 세계적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이 주요 성장동력인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무역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및 자금, 기술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만 국제환경규제 대응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이 없어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귀호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장은 국내 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정보제공,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관련 협회, 조합, 연구

소, 컨설팅 기관, 시험분석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까지 대응 시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일부 기업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 이 센터장은 “기업지원센터에서는 Track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의·계획 중인 규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방지할 수 있는 한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거점 지원센터로,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EU, 미국, 일본 등의 환경규제 특히, 화학물질 규제동향을 파악,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체계(Tracking 시스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규제별 분석팀을 구성, 국가별 환경정책 또는 규제를 Tracking DB를 이용하여 분석, 기업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업 생산활동과 관련한 정보(Intelligence)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기업이 모든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One-stop 지원을 하며, 수도권, 충남, 대전, 광주, 구미 등 RoHS 대응 5개 지역 기관을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역센터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귀호 센터장은 “포장산업도 국제환경규제는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국제흐름”이라고 밝히면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포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도 국제환경규제 정보에 촉각을 세워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REACH(新화학물질관리제도)에서 포장재 자체는 물론,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는 각각 완제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완제품에 해당되는 의무사항(신고, 허가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수출이 전면 철회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한 예로 곱팡이 억제제로 사용되거나 방습제로 사용되는 Dimethyl fumarate(DMF)가 포함된 중국산 구두와 하이힐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피부발진을 일으켜 모든 제품 철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2인용 소파(Linkwise)에서 운송 시 곱팡이를 억제 하기 위해 DMF가 든 주머니를 소파 안에 넣고 운반했고, 핀란드에서(2006~2007년) 소파를 사용한 60명이 홍진에게 발생하여 역시 소파가 반품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귀호 센터장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환경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사전에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다른 기업이 포기한 시장을 찾을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녹색규제 태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제 환경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업지원센터와 상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귀호 기업지원센터장은 그동안 한화그룹종합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충남대학교 국제전임교수직을 거쳐 지난 1999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2003년부터 청정기획실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REACH 기업지원센터장을 거쳐 지난 달부터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ko**

박초혜 기자